



미 증시, 잭슨홀 경계심리에도 지표 호조로 상승

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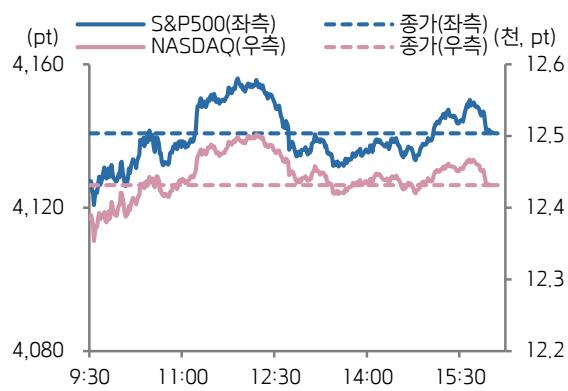
25 일(목) 미국 증시는 잭슨홀 미팅이 시작된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에도, 긴축 우려 선반영 인식, 금리 하락,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침체 우려 완화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 (다우 +0.98%, S&P500 +1.41%, 나스닥 +1.67%).

잭슨홀 심포지엄에서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'올해 금리 인상을 앞당겨야 하며, 연말까지 3.75~4.00%대까지 도달해야 한다'고 언급.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역시 '7 월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일부 완화되는 것을 목격했지만,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'고 언급하는 등 연은 총재들이 9 월 FOMC 75bp 인상을 지지한다는 매파적 발언들을 이어감. 그러나 내일 있을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두고 시장 영향은 제한적.

미국 2 분기 경제성장을 잠정치는 QOQ -0.6%(예상 -0.7%, 이전잠정치 -0.9%)로 발표되며 2 분기 연속 (-)를 기록했지만, 이전 속보치 대비 상향조정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. 개인소비 1.5%(예상 1.5%, 이전잠정치 1.0%)로 상향 조정, 물가지수 8.9%(예상 8.7%, 이전잠정치 8.7%)로 소폭 상향.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4.3만명(예상 25.2만명, 전주 24.5만명) 전주 대비 둔화 되었다는 점도 긍정적. 그러나 8 월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지수는 3(예상치 10, 전월치 13)로 급락. 한편, 독일 2 분기 경제성장을 QOQ 0.1%(예상 0.0%, 1 분기 0.8%), YOY 1.8%(예상치 1.5%, 1 분기 3.9%)로 발표되며 예상보다 견조. IFO 기업환경지수 역시 88.5(예상치 86.8, 전월치 88.7)로 예상치를 상회하며 유로존 침체 우려는 다소 완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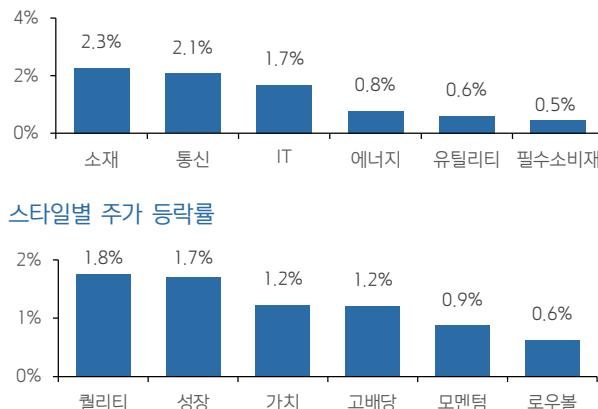
업종별로 전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소재(+2.3%), 통신(+2.1%), IT(+1.7%)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커고, 필수소비재(+0.5%), 유ти리티(+0.6%), 에너지(+0.8%)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. 애플(1.49%), 알파벳(2.6%), 아마존(2.6%), 메타(3.38%) 등 시총 상위 대형기술주들이 상승을 주도. 테슬라(-0.35%)는 1:3 주식분할 후 첫거래일 하락 마감, 전일 실적 쇼크를 발표한 엔비디아(4.01%)는 실적 전망치 상향 의견 제시되며 반등에 성공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외환시장	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199.12	+1.41%	USD/KRW	1,335.45	-0.51%
NASDAQ	12,639.27	+1.67%	달러 지수	108.41	-0.24%
다우	33,291.78	+0.98%	EUR/USD	1.00	+0%
VIX	21.78	-4.56%	USD/CNH	6.85	+0.03%
러셀 2000	1,964.64	+1.52%	USD/JPY	136.49	+0%
필라. 반도체	2,971.07	+3.66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4,957.70	+1.73%	국고채 3년	3.535	+22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3.585	+14.5bp
Eurostoxx50	3,674.54	+0.19%	미국 국채 2년	3.366	-2.4bp
MSCI 전세계 지수	642.97	+1.26%	미국 국채 10년	3.026	-7.8bp
MSCI DM 지수	2,736.01	+0.21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985.13	-0.45%	WTI	92.52	-2.5%
MSCI 한국 ETF	59.62	+2.05%	금	1771.4	+0.56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+2.05% 상승, MSCI 신흥국 ETF 는 +2.16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42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334.54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주요 체크 사항

-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에 따른 국내 관련 주들의 투심 개선 여부
- 원화 약세 오버슈팅 해소에 따른 외국인 순매수 기조 유지 가능성
- 주도주 논란이 부상하고 있는 태조이방원 내 업종 간 로테이션 발생 가능성

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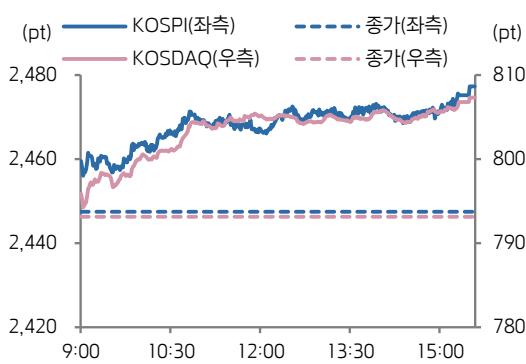
전일 유럽 및 유로화 반등, 미국 증시 연속 강세에는 독일(0.1%QoQ, 컨센 0.0%)과 미국(-0.6%, 컨센 -0.8%)의 GDP 가 예상보다 양호한 수치를 기록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임. 물론 이 같은 경제의 양호함은 중앙은행들로 하여금 긴축 강화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사실. 하지만 연준이 지난 7 월 FOMC 의사록 상 긴축 정책이 물가 뿐만 아니라 성장에 미치는 지나친 하방 위험을 경계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, 연준 등 중앙은행들은 과도한 금리인상 기조 유지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.

일단 현재까지는 9 월 FOMC 75bp 인상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된 가운데, 25 일 세인트루이스 연은, 애틀랜타 연은 등 주요 연준 인사들이 9 월 75bp 인상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. 금일 밤 발표 예정인 파월의장의 잭슨홀 연설에서도 매파적인 색채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시장의 무게 중심이 쓸려있는 것으로 보임. 그러나 25 일 잇따라 있었던 다수의 연준 위원 발언을 종합해보면, 이들은 대체로 9 월 주요 지표(8 월 고용 및 CPI) 결과가 9 월 FOMC 에 반영이 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음.

시장 입장에서도 9 월 FOMC 이전까지 잭슨홀, 고용, CPI 등 정책 결정에 미치는 이벤트를 소화해야 하는 만큼, 금리인상 확률 변화에 민감도를 크게 높이는 것은 지양할 필요.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자체는 유력해졌다는 점을 감안 했을 때, 50bp 인상을 베이스 경로로 상정하고 9 월 13 일(화) 예정된 8 월 미국 CPI 결과를 확인한 후 경로 수정에 나서는 것이 적절. 업종 관점에서도 한국이나 미국 증시에서 지난주 이후 잭슨홀 경계심리가 인플레이션 수혜주에 대한 시장의 베팅을 늘어나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, 상기 내용을 고려 시 이들에 대한 추가 비중 확대보다는 인플레이션 피해주 비중 확대에 나서는 전략도 해볼 만하다고 판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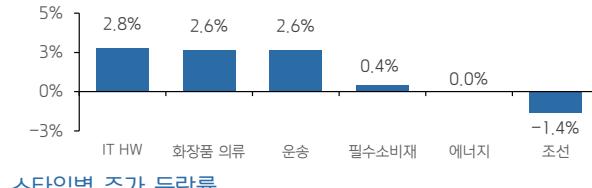
전일 국내 증시는 25bp 인상 및 매파적이었던 금통위 결과 이후 채권금리 급등에도, 원/달러 환율 하락 속 개별호재에서 기인한 원전, 조선, 2 차전지 관련 업종들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(코스피 +1.2%, 코스닥 +1.8%). 금일에도 잭슨홀 미팅 대기심리는 짙어질 전망이나, 원화 약세 오버슈팅 해소 기대에 따른 외국인의 우호적인 수급,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강세(+3.7%) 효과 등에 힘입어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. 또한 최근 시장의 주요 관심 섹터로 부상하고 있는 태양광, 조선 등 태조이방원 테마와 관련해 시장 참여자들간 주도주 논란이 일어나면서 해당 테마 내에서 로테이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. 금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집트 대규모 수주 소식 등 관련 뉴스풀로우들에 따라 증시 자금이 수시로 이동할 수 있는 만큼, 이로 인한 주가 변동성 확대는 유의할 필요.

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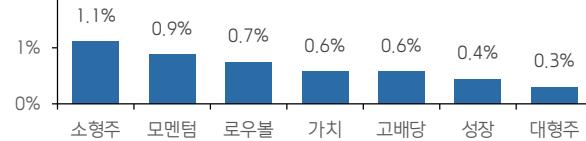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

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시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시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제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.